

# 광주 광산구 거주 아프리카 노동자들 남아공보다 뜨거운 '응원 월드컵'

외국인근로자센터 모여  
자국 대표팀 승리 기원



“나이지리아 이겨라”

광주시 광산구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에 모인 아프리카인들이 지난 17일 밤 TV 앞에 앉아 월드컵 예선 나이지리아-그리스전을 시청하며 나이지리아 팀을 응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이지리아는 8년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자국민들의 16강 진출 기대는 그만큼 높았다. 자국의 월드컵 경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국비장학생 토크(27)씨는 “나이지리아가 2패를 해 아쉽지만 남은 경기에 따라 얼마든지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며 “한국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꼭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TV중계가 끝나면 한테 모여 인터넷으로 월드컵 관련 자료를 검색했다.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국의 경기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일하느라 바쁘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 축구경기를 보는 것은 일상 속의 큰 기쁨이라는 것. 가나에서 온 근로자들은 자국의 대표팀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뒀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아타(47)씨는 “1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며 “아프리카인들 사이에서 가나 축구팀의 경기는 어디에서든 화제가 되며 가나가 준결승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사키(33)씨도 “선전하는 가나 선수들을 보니 고향 생각이 간절하다”며 “모두 함께 응원하니 일에 대한 피로도 풀리고, 더 힘이 나는 것 같다. 계속 월드컵 기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경기를 챙겨보며 자국의 대표팀을 응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광주 속 작은 아프리카는 행복하게만 보였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월드컵 트렌드 2題

### CGV 광주터미널서 3D 응원 해보니 “공이 내 앞으로 튀어오더라”

“공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선수들도 바로 옆에서 패스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 광주시 광천동 CGV 광주터미널에서 3D로 아르헨티나전을 관람한 이호재(37·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경기 내내 탄성을 멈추지 않았다. 생동감 넘치는 화면으로, 축구경기장 맨 앞 좌석에서 보는 것 같은 3D 영상에 90분 매료됐기 때문이다. 이날 광주지역에서는 최초로 CGV 광주터미널이 특선신용카드 고객 480여명을 초청해 3D 응원전을 개최했다.

할 방침이었으나 신용카드사에서 이를 모두 사들여 고객들에게 서비스했다”며 “23일 나이지리아 경기의 3D 응원전은 좌석 당 1만원에 일반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23일 오후 5시 현재 480석 중 400여석이 이미 판매 됐다”고 말했다.

### 모든 경기 밤 10시 30분 이후에 끝나니 콘돔 등 성인용품 판매 ‘불티’

2010 남아공 월드컵 응원 열기 속에서 유통업계의 콘돔과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부쩍 늘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에서는 그리스전이 열린 지난 12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팔린 콘돔이 2개 또는 4개 들이 박스로 5000여 박스에 달했으며, 아르헨티나전이 치러진 17일에도 3000여 박스가 팔렸다. 이는 평일 하루 평균 판매량인 1500개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홈플러스에서도 지난 12~17일의 콘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한국 대표팀의 두 경기 모두 밤 10시30분경 끝

나면서 젊은층들이 귀가보다는 술자리와 외박을 즐긴 것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며, 당시 ‘월드컵 베이비’라는 용어까지 유행했었다.  
GS25 관계자는 “그리스전이 열린 12일은 토요일이었고 비도 내리는 등 날씨와 요일 변수가 있어 아르헨티나전 때보다 판매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나원침 (8051) 김장두



### 초등학교 주변에 순찰함 설치한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에 순찰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아동안전 지킴이함’으로 이름붙인 순찰함은 지역 경찰관이 아동안전 순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점검, 확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학교 주변, 놀이터, 공원, 재개발지역 등에 설치된다. 경찰관은 순찰함에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순찰차에서 내려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나 술에 취한 사람이 있는지 ▲방범용 CCTV는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 순찰표에 적은 뒤 확인증을 함에 집어넣어야 한다. /연합뉴스

## 아르헨전 패배 탓김에 ... 음주사고 잇따라

18일 새벽 4시20분경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쉐타페 승용차를 몰고 가던 박모(32)씨가 김모(45)씨의 라노스 승용차를 추돌했다. 동료와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술을 마신 박씨는 사고 직후 1km 가량 달아나다 뒤쫓아온 이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7일 밤 11시경에는 서구 금호동 금호소방과출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던 김모(여·23)씨가 앞서가던 최모(여·35)씨의 소나타 승용차를 추돌하는 등 하룻밤 새 광주지역에서만 5건의 음주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4급 승진자에게도 수천만원 받았다” 전주언 서구청장 수취혐의 추가

### 검찰, 선거법 위반은 2년 구형

인사비리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언(62) 광주시 서구청장이 5급 승진자뿐만 아니라 4급 승진자에게 승진 인사 대가로 수천 만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18일 광주시 서구청은 “승진 인사를 앞두고 서구청 소속 공무원 임모(57·4급) 국장에게 돈을 건넨 이모(57·4급) 국장·오모(44·5급) 동장 등 5명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애초 전 청장은 5급 승진예정자였던 오모(44) 동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조치로 4급 승진예정자였던 이모(57) 국

장에게도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구청은 또 같은 날 이들에게 돈을 받아 전 청장에게 전달한 임모(57) 국장도 직위해제 했다.  
한편 광주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원들을 동원해 임모를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4부(정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공권선거는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청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당원모집 등을 도운 전 수병서 이모(42)씨와 5

## 값비싼 공공용 소나무 민간업자에 불법 매각

### 경찰, 영광군 공무원 수사

공공용 소나무가 민간업체 등에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영광군이 각종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어쩔 수 없이 이식해야 할 나무를 지정된 장소에 옮겨심거나 경관 조성에 활용하지 않고 업체 등에 불법매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거래 경로 및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나무은행 제도’를 도입·시행 중인 영광군 공무원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자와 연루됐을 가능성

이 큰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 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경수 가운데서도 소나무는 거래가격이 비싼 품종으로 굵기와 모양에 따라서 수천만~억대를 호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 5.33대 1 경쟁

17일 2011년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원서접수에서 60명 정원에 320명이 지원해 5.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3.65대 1보다 상승한 것이다.  
일반전형은 40명 모집에 214명이 지원, 5.35대 1, 광주·전남지역 고교 출신자 전형 20명 모집에는 106명이 지원해 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선대는 2011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도 7월23일 1단계 합격자를, 10월6일 최종합격자를 조선대 홈페이지(http://ibhak-md.chosun.ac.kr)를 통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최희중기자 chae@

“공부해라” 꾸중하며 여고생 몸 더듬  
○광주북부경찰은 18일 초등학교에서 얘기를 나누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이모(50·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경 광주시 북구 오치동 모 초등학교에서 광주 모 여고 3년 김모(18)양의 몸을 더듬었다는 것.  
○김양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빛이 쬐진 신체접촉일 뿐”이라며 범행 사실을 강력 부인.  
○경찰은 김양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귀가하려던 이씨를 현장으로 체포.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 날씨  
장맛비 잠시 멈춤  
장마전선은 소강상태를 보이며 하루종일 구름이 많았다.  
광주: 구름 많음 21/30℃  
목포: 구름 많음 20/26℃  
여수: 구름 많음 20/26℃  
완도: 구름 많음 19/26℃  
구례: 구름 많음 20/30℃  
해남: 구름 많음 19/26℃  
장흥: 구름 많음 19/26℃  
고흥: 구름 많음 19/28℃  
순천: 구름 많음 20/28℃  
영양: 구름 많음 20/27℃  
전도: 구름 많음 19/26℃  
전주: 구름 많음 21/29℃  
남원: 구름 많음 20/27℃  
옥산: 구름 많음 17/22℃  
외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목포, 제주,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목포, 제주

## F-5F 전투기 또 추락 ... 2명 사망

### 어제 동해상 ... 기체 결함

18일 오전 10시33분경 강원도 강릉의 제18전투비행단 소속 F-5F(제공호) 전투기 1대가 기지로 복귀 중 동해상에 추락했다.  
F-5F 전투기는 이날 오전 9시43분 강릉기지를 이륙해 태백 필승사격장에서 공대지사격 임무를 수행한 뒤 기지로 귀환하다가 기지에서 1.8km가량 떨어진 동해상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전방서 조종사 정모 중위와 후방서 조종사 박모 중위가 실종됐다. 해군과 해경의 해상 구조 작업 중 시신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정 중위는 낙하산 줄에 얽힌 채 물

에 떠 있었고, 박 중령은 헬멧을 쓴 채 낙하산을 매고 있었다.  
낙하산이 일부 펼쳐져 있었던 점으로 미뤄 추락 중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사고원인이 조종사의 ‘비행착각’(vertigo)이 아니라 기체 결함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조립·생산된 F-5F는 기장 14.4m, 기고 4m, 기폭 8.13m, 항속거리 2863km, 전투 행동반경 704km에 이르며 ‘AIM-9 사이드 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무장했다. 사고기는 9000여 비행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2004년 이후 공군 전투기 추



락사고 건수는 10건에 달하며 14대의 전투기가 추락했다. /연합뉴스